

濟州地域語의 口蓋音化에 대한 一研究

金 光 雄

I

濟州地域語는 他地域語에 비하여 特異한 境界를 이루어 濟州方言이란 하나의 方言群을 形成하고 있다. 音韻現象과 特殊方言에 이르러서는 古語方言群 中에서도 南鮮方言群과는 同一視하기 어려운 獨特性을 維持하고 있어 共時的으로도 陸地語와는 大別되는 古語, 民俗의 보고를 形成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言語學의 根源的인 연구가 個別言語로서 自然語라면 國語學의 研究對象은 諸地域語에 대한 研究의 總合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濟州地域語가 갖는 意味는 方言研究의 하나라기보다 國語學 本領을 研究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地理的 여건 등으로 이 地域語의 연구는 他地域語보다 沈滯를 거듭하고 있으며, 근래에 와서는 외부로부터의 文化的, 社會的 영향과 교육의 발달로 濟州道의 독특한 自然文化, 言語文化의 環境이 파괴되어 그 特質이 소멸되어 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바라는 것은 理論研究와 더불어,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이루어져 이 地域語에 묻혀 있는 文化的 遺産이 그 眞價를 발휘하여, 국어학의 理論 정립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本稿에서는 音韻論研究의 一環으로, 濟州地域語가 共有하고 있는 口蓋音化現象을 고찰하고자 한다.

濟州地域語의 口蓋音化現象에 관한 研究는 몇몇 학자에 의해 概觀的으로 지적되었으나,¹⁾ 그 適例에 內在한 共通的인 音韻現象 등을 集約的으로 고찰하는데 있어 미흡한 점이 있어, 그 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이 現象에 內在한 共通的인 特徵을 살펴보려고 한다.

1) 李崇寧, “濟州地域語의 形態論的 研究” 「國語學論攷」, 1960, pp. 279~392.
 玄平孝, 「濟州道方言研究」, 第一集 資料篇, 1961.
 金亨奎, 濟州島方言, 「韓國方言研究」, 1980, pp. 412 ~ 428.

資料의 수집은 濟州地域語를 中心으로 60才 以上の 提報者를²⁾ 선정하여 검증을 기하였으며, 그 밖의 자료는 金亨奎「韓國方言研究」, 玄平孝「濟州島方言研究」, 石宙明「濟州島方言」, 박용후「제주방언연구」를 참조하였다.

II

口蓋音化는 /i/나 /y/에 先行하는 非口蓋音이 前舌高母音性을 가진 /i/나 /y/의 [-back]
[+high]의 特性의 影響을 받아 [-back]
[+high]의 特性을 가진 口蓋音으로 變하는 現象을 말한다.

現代國語에서 口蓋音化의 對象이 되는 子音을 類型으로 나누면, /k/, /k^h/, /k'/가 中心이 되는 k-系 口蓋音化, /t/, /t^h/, /t'/가 中心이 되는 t-系 口蓋音化, /h/가 中心이 되는 h-系 口蓋音化, /l/이 中心이 되는 l-系 口蓋音化, /s/가 中心이 되는 s-系 口蓋音化 등으로 大別될 수 있다. 그러나 /l/, /n/, /s/系 口蓋音化는 音聲的 實現에 있어, 分明히 확인되는 것이지만 變異音의 領域을 넘어 서지 못하고 있음이 또한 사실이므로 여기서는 表面的 實相을 보여주는 /k/系, /t/系, /h/系에 대해서만 記述하려 한다.

많은 先行研究가 口蓋音化의 生成條件과 그 規則設定에 傾注되어 왔다. 김진우 교수는 口蓋音化된 /i/와 口蓋音化되지 않는 경우의 /i/를 區別하여, 前者는 /i/이고 後者의 /i/는 /yi/라고 하고 이는 다시 各各 그 基底形의 /ɨy/와 /yɨ/에서 絕對中和(absolute neutralization)로 導出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對한 몇 가지 견해는 다음과 같다.³⁾

	palatalizing i.	nonpalatalizing i.
C. W. Kim(1968)	/jɨj/	/ɨj/
Y. S. Moon(1974)	/i/	/ɨj/
C. M. Lee(1972)	/i/	/ɨj/
B. G. Lee(1973)	/i/	/ɨi/

특히 口蓋音化現象은 거의 모든 自然言語에서 나타나는 現象으로 그 類型을 두 가지로 區別할 수 있으니 齒音 口蓋音化(Dental palatalization)와 軟口蓋音 口蓋音化(velar palatalization)이다.

국어에서는 치음 경구개음화와 연음 경구개음화가 다른 나라보다는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현상이다. 이들에 대한 先行研究에서 행해진 口蓋音化 규칙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⁴⁾

1) D.F.P. 규칙(dental fricative palatalization rule)

2) 제보자: 李君雨(56才. 濟州市 화북동), 文致訓(63才. 濟州市 도두동), 金大成(67才. 濟州市 삼도이동), 姜互明(70才. 濟州市 삼도이동)

조사자: 홍성해, 문영애, 현순옥., 오경은, 임희정, 부명혜(1984년도 국어교육과 4년)

3) Kim, chin-wu, 'The vowel system of Korean,' *Language* 44, 1968, pp. 516-527.
金手坤, palatalization in Korea, 탑출판사, 1976, p. 47.

이병진, 「현대한국어의 생성 음운론」, 一志社, 1976, pp. 149-172.

$$\left[\begin{array}{l} +\text{obst} \\ +\text{cont} \end{array} \right] \rightarrow [\text{high}] / \text{---} (+) \left[\begin{array}{l} -\text{cons} \\ +\text{high} \\ -\text{back} \end{array} \right]$$

2) D.N.P. 규칙(dental nasal palatalization rule)

$$\left[\begin{array}{l} +\text{nas} \\ +\text{coronal} \end{array} \right] \rightarrow [\text{high}] / \# (\text{cov}), \text{---} (+) \left[\begin{array}{l} -\text{cons} \\ +\text{high} \\ -\text{back} \\ -\text{round} \end{array} \right]$$

3) L.P. 규칙(Liquid palatalization rule)

$$l \rightarrow [\text{high}] / \text{---} \left[\begin{array}{l} -\text{cons} \\ +\text{high} \\ -\text{back} \\ -\text{round} \end{array} \right]$$

4) D.S.P. 규칙(oral dental stop palatalization rule)

$$\left[\begin{array}{l} +\text{stop} \\ -\text{fortis}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begin{array}{l} -\text{ant} \\ +\text{high} \\ +\text{strid} \end{array} \right] / \text{---} + \left[\begin{array}{l} -\text{back} \\ +\text{high} \\ -\text{cons} \end{array} \right]$$

本稿에서는 위와 같은 本質的인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濟州地域語에 나타난 共時的인 內容을 살피려 한다.

III

共時的인 音韻現象은 아니지만, 通時的인 입장에서 연구해 온 語頭에서의 k系 口蓋音化는 /i/나 /y/의 $\left[\begin{array}{l} -\text{back} \\ +\text{high} \end{array} \right]$ 資質의 영향을 입어 /k, k^h, k'/가 /c, c^h, c'/으로 바뀌어 소리나는 現象을 말한다.

이 內容을 규칙화하면 다음과 같다.

$$k \rightarrow s / \text{---} \left\{ \begin{array}{l} i \\ y \end{array} \right\}$$

$$k' \rightarrow s' / \text{---} \left\{ \begin{array}{l} i \\ y \end{array} \right\}$$

4) 이에 대한 논의는 많은 논쟁점을 일으키고 있어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이다.

김수곤, op. cit.

이병건, 현대 한국어의 구개음화 규칙, 「언어」 2-1호, 한국언어학회, 1977.

이병건(1976), op. cit.

김영기,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서울 탐출판사, 1975, pp. 196~218.

(1) 소지동, 소지똥.

쇠질마.

색유지름.

지리도 질다, 지레기가 질다.

지미 지었져.

발이 강 짐 메라.

질튼다.

질빠닥, 질 치라.

짐쌍 먹으라. 짐밥 쌍가라.

배치 짐치, 배치 짐끼.

저 밥허망 짐 남시네. 짐 올라 왓져. 아이고 짐 남져.

잘도 물이 지퍼라.

지집 아이, 지집년.

접저ㄴ리.

지레가 크다.

고개 자우렘쩌.

그 일 제우사 했쩌. 제우 이 까짓 거 주나?

이 끈 잘도 질다.

누게 지델렘시? 지드리지 말앙 자라. 지드래도 안 오람쩌.

지쁘게 우섬져. 지껴정 죽어지켜?

팽 자우렘 지름 비우라. 지우렘쩌.

항아리에 물 지러 불라.

주영 입으라. 주워 불라.

지폰디 가지 말라. 그 물 잘도 지프다.

저누암쩌.

일년만 준덤시라.

허리가 철렘쩌. 하간디 절리난 아퍼 죽어지켜.

눈물 제워 눈을 뜨지 못하겠다.

(2) 기둥 : 지둥, 지똥.

길마 : 질마.

기름 : 지름.

길이 : 지레기, 지력시.

기미 : 지미.

김 : 짐.

기와 : 지와, 지애.

- 기지개 : 지지개, 질.
 기침 : 지침.
 길(路) : 질
 김(海台) : 짐.
 김(수증기) : 짐.
 김치 : 짐치, 짐끼.
 깊이 : 짚이.
 겨울 : 저실, 저슬.
 겨집 : 지집.
 결 : 절.
 기슭 : 지슭.
 겹(옷) : 접.
 키(舵) : 치.
 김 서방 : 짐 서방.
 굴 : 줄.
 키(身長) : 지레.
 겨레 : 저레.
 기우뚱 : 자우뚱, 자울락.
 겨우 : 제우.
 길다 : 질다.
 기쁘다 : 지쁘다, 지껴지다.
 기다리다 : 지다리다, 지드리다.
 기울다 : 지울다, 지우리다.
 기웃거리다 : 지웃거리다.
 길다 : 질다.
 기접다 : 지접다.
 겨누다 : 저누다.
 견디다 : 전디다.
 결리다 : 절리다.
 겹다 : 제우다.
 견주다 : 전주다.
 결단코 : 절단코.
 겸하다 : 점하다.
 겹치다 : 접치다.
 기르다 : 질루다.
 결날개 : 켈날개.

결눈질 : 전눈질.
긴자락 : 진자락.
결가지 : 췌가지.
계꾼 : 접꾼.
기상 : 지상.
김녕 : 짐녕.
기뻐 : 지뻐.

(3) (먼저, 안개) 끼다 : 찌다.

낌새 : 찼새.
끼리끼리 : 찌리찌리.
(꽤를) 끼치다 : 찌치다, 끼치다.
껴앉다 : 찌앉다.
(소름) 끼치다 : 지치다.

(1), (2), (3)에서 보듯이 이 地域語에도 k-系의 口蓋音化는 語頭에서 아주 活潑함을 보여 주고 있다. <기슭>이 <지슭>, <굴>이 <줄>, <겨레>가 <저레>, <겨우>가 <제우>, <기뻐>이 <지뻐>, <겨누다>가 <저누다>, <기상>이 <지상>, <기우리다>가 <지우리다>, <전주다>가 <전주다> 등에서 보듯이 中部方言群, 南部方言群보다 훨씬 발전적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음절 이하에서는 그 現象이 同一하지 않음을 다음의 例에서 볼 수 있다.

(4) 아기 : 애기.

토끼 : 뿔끼.
소나기 : 쉼네기, 쉼네기.
조끼 : 췌끼.
고기 : 궤기.
보자기 : 보재기.
포자기
이야기 : 이애기.
여왜기.
잠꾸러기 : 줍꾸러기.
누더기 : 누데기.
부스러기 : 븃시레기.
싸라기 : 쑤래기.
찌꺼기 : 찌그러기.
찌게기.

體言이 單一形態素로써 /i/를 同化主로 하는 모음과 /a, ə, o, u, ɨ/를 被同化音으로 하는 사 이에 나타나는 [-coronal]인 /k, k'/가 2음절 以下에서는 口蓋音化가 生成되지 못하고, 움라우 트가 生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음절 以下の 어휘형태소(Lexical morpheme) /i/중에 形態音素的 層位的 /i/가 있다.

(5) 여기 : 이디, 요디.

저기 : 저디.

거기 : 그디, 거기.

모기(蚊) : 모기.

포기 : 폐기.

퍼기.

포기.

푸기.

모기 소리 듣듯 하야(楞解 4:3)

모귀 곧 혼 거시 제 어느 能히 當하리오.(杜解, 1:56)

퍼괴 : 叢.

꽃퍼괴 : 花叢(同文解上 45).

이어괴 왓더니 글로 일후물 사막니라.(月釋 2:27).

이어괴 受若홀 싸르미(月釋 1:29)

形態音素的 層位的 /i/는 史物觀點으로 볼 때 純正의 /i/라고 볼 수 없다. 이 경우 口蓋音化는 形成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디>, <저디>, <그디> 등은 15C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原始國語系인 保守性을 維持하면서, 口蓋音化, 움라우트 현상도 形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본다.

(6) 우기다 : 위기다.

벗기다 : 백기다.

웁기다 : 뺨기다.

말기다 : 맥기다.

섬기다 : 생기다.

삼키다 : 생키다.

습키다.

습지다.

앵키다 : 앵키다.

통기다 : 땡구리다.

여기다 : 여기다.

추키다 : 추그리다.

用言이 어휘형태소로 단일한 경우도 k-系 口蓋音化는 2음절 以下에서 成立되지 못하며, 올라우트는 生成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삼키다>가 <생키다> <습지다>로 並行되고 있음은 특이한 例라고 하겠다.

(7) 닭+이 : 닭기.

나락+이 : 나르기.

속+이 : 쏘기.

수족+이 : 스족이.

우박+이 : 우박이.

어휘형태소(Lexical morpheme)가 문법형태소인 主格 /-i/에 先行할 때 體言의 未音 /k/는 /-ki/의 口蓋音化를 경험하지 못한다.

(8) (머리가) 깎이다 : 깨끼다.

깎끄다.

(구멍이) 막히다 : 매키다.

(못이) 박히다 : 배키다.

(마루가) 닳이다 : 대끼다.

(밥이) 먹히다 : 메키다.

(사람이) 쫓기다 : 쪼끼다.

(아이가) 안기다 : 앵기다.

안찌다.

(나무가) 꺾이다 : 꺾끼지다.

(실이) 감기다 : 가마지다.

(쌀에 흙이) 섞인다 : 서끼지다.

(음식을) 삭인다 : 새긴다.

(음식을) 먹인다 : 매긴다.

(사람을) 속이다 : 쇠기다.

(거름을) 썩히다 : 썩기다.

(돌을) 옮기다 : 웅기다.

(닭을) 죽이다 : 쥐기다.

(물건을) 맡기다 : 매끼다.

(어린이를) 웃기다 : 웃지다.

(사람을) 숨기다 : 숨지다.

(팔을) 굽히다 : 굽지다.

굽기다 : 굽지다.

감기다 : 굽지다.

굽기다.

被動, 使役接尾辭 /-i-/ , /-hi-/ , /-ki/가 /-ki-/ , /-k^hi-/ , /-k'i-/의 형태로 縮約이 되어 나타나더라도 2음절 이하에서는 口蓋音化가 形成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웃지다>, <숨지다>, <굽지다>, <굽지다>의 形態는 /-ki-/가 /-ci-/로 變換 口蓋音化의 현상이라기보다는 濟州地域語의 特異한 形態인 被動接尾辭에 命令形이 연결된 /-지라/形인 使役形 形態의 일종이라고 생각된다.

(9) 먹이 : 메기.

누더기 : 누데기.

곶하기 : 곶하기.

곶해기.

칸막이 : 칸매기.

본보기 : 본뻬기.

줄넘기 : 줄렘기.

꿇기 : 꺾무지.

가꾸기 : 질루기.

밟기 : 밟기.

밟지.

똑똑이 : 똑또기.

넉넉히 : 넉너키.

속히 : 소키.

(10) 듣기 싫다 : 듣지 실프다.

가기 싫다 : 가지 실프다.

먹기 싫다 : 먹지 실프다.

하기 싫다 : 허지 실프다.

벗기 싫다 : 벗지 실프다.

오기 싫다 : 오지 실프다.

속기 쉽다 : 속지 쉽다.

文法形態素(Grammatical morpheme)의 결합에 있어서도 Nominalizer /-i/ , /-ki/가 연결될 때 形態論的이거나 統辭論的 功能을 가진 /-i/ , /-ki/든 간에 2음절 이하에서는 口蓋音化가

成立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10)의 類型에서는 일견 /-ki/가 /-ci/로 口蓋音化한 現象으로 보인듯 싶으나 이때 나타나는 /-ci/는 15C 명사형어미 /-ti/가 그대로 전승되어 /-ci/로 발달한 것으로 육지어와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15C 形態素 /-ti/가 /-ci/로 變化된 t-系 口蓋音化現象이라 보여진다.

(11) 반기다 : 반지다.

추키다 : 추치다.

내키다 : 내치다.

가기는 : 가진.

빚기다 : 빚지다.

꿈기도 했다 : 굶지도 했주.

알기 : 알지.

밧기 : 밧지.

꿈기 : 굴무지, 굶지.

위의 例는 單一形態素로 構成된 語彙이거나; 文法的 形態素의 연결에 있어서 2음절 이하에서도 口蓋音化가 生成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他方言群과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口蓋音化가 擴大되어 가고 있는 하나의 실례가 아닌가 한다.

(12) 우리끼리 : 우리찌리.

참기름 : 참지름.

왓김 : 왓짐.

물결 : (물)질.

입길 : 입질.

손길 : 손질.

옷깃 : 옷짓.

부싷깃 : 불찍.

들기름 : 유지름.

쌀겨 : 보미.

하나의 形態素 또는 單語의 資格을 가지고 있는 形態가 先行되는 合成語의 경우 後行하는 單語는 그 頭音 /k/가 口蓋音化하고 있다. 勿論 그 單語는 合成語가 되기 이전에 單一語로써 口蓋音化를 일으키는 前提條件이 따라야 한다.

(13) 기여드십시요 : 기여듭서.

기별 : 기뻐.

기러기 : 기레기.
 그레기.
 지레기.
 지러지,
 키(身長) : 지레.
 기차 : 기차.
 기린 : 기린.
 키우다 : 키우다.
 기다리다 : 지드리다, 지두리다.

(14) 게(蟹) : 갱이
 갱이.
 그림 : 기림.
 (방귀) 꺾다 : 끼다.
 꺾다.
 사귀다 : 사기다.
 (그림) 그리다 : 기리다.

鴻 : 괴러기홍. (訓蒙上 15)
 雁 : 괴러기안. (訓蒙上 15)
 셔불 기별을 알씨. (龍歌 35)
 괴논 귀시며 늑논 거시며, (月釋 1:11)
 金 사르미 틀헤 느라 오시니 켜 크시고, (月釋 2:65)
 괴차 : 기차.
 괴틀 : 기틀.

(13)의 語辭들은 첫음절에서도 口蓋音化를 외면하고 있다. 이들 語辭들은 본래부터의 /i/가 아니고 二重母音들이 單母音으로 바뀐 /i/이다.

通時的觀點에서 볼 때 語頭의 k-系가 c-系로 구개음화 되던 時期에 地政學的 保守性으로 二重母音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구개음화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그 후 二重母音이 單母音으로 바뀌었으나 現在까지 語頭 /k/의 口蓋音化는 生成되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기러기>가 <그레기>와 <지레기>, <기다리다>가 <지드리다>와 <지두리다>, <키>가 <지레> 등은 二重母音의 범주에서 벗어난 그리고 형태음소론적 제약에서 점진적으로 벗어 나려고 하는 예를 보여 주고 있다 하겠다.

또 (14)의 例에서 보듯이 現代語의 二重母音 /-wi/나 i모음 역행동화의 일부분인 前舌母音化

에 의해 생성된 /i/ 또는 /e/가 /i/로 표현된 표층구조 /i/ 모음 앞의 /k/, /k^h/, /k'/ /는 口蓋音化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ɨ/, /wi/, /e/에서 生成된 /i/는 비록 그것이 口蓋音化를 일으킬 수 있는 位置에 있다고 하더라도 純正의 /i/가 아니기 때문에 同化主로서 資格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15) 결단(決斷) : 결단.

절단.

교장(校長) : 조장.

교장.

경기(驚氣) : 정끼.

경끼.

결박(決縛) : 절박.

결박.

결심(決心) : 절심.

결혼(結婚) : 절혼.

결혼.

겸상(兼床) : 점상.

경력(經歷) : 정력.

경력.

경우(境遇) : 정우.

경우.

경솔(輕率) : 정솔.

교제(交際) : 조제.

규칙(規則) : 주칙.

결과(結果) : 절과.

결국(結局) : 절국.

경매(競賣) : 정매.

경비(經費) : 정비.

경성(京城) : 정성.

결산(結算) : 절산.

결석(缺席) : 절석.

경찰(驚察) : 정찰.

경치(景致) : 정치.

경험(經驗) : 정험.

계(契) : 제.

계.

교대(交代) : 조대.
 교섭(交涉) : 조섭.
 교통(交通) : 조통.
 계원(契員) : 켜군.
 겻군.
 결원(缺員) : 절원.
 결정(決定) : 절정.
 결판(決判) : 절판.
 경쟁(競爭) : 정쟁.
 규정(規定) : 주정.
 교사(校舍) : 교사.
 교사(教師) : 교스.
 기생(妓生) : 기생.
 기명(器皿) : 기맹.
 교실(教室) : 교실.

k-系 口蓋音化에서 漢字語의 경우 一定한 규칙을 生成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漢字語의 경우 原則的으로 k-系 및 h口蓋音化에서 除外되었으나, 言衆의 意識에 漢字語라고 認識되지 않았을 경우에 口蓋音化하였다.”⁵⁾라고 하였다.

이 地域語의 口蓋音化는 語頭에서 他方言에 비해 그 現象이 뚜렷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gillieron이 말한 言語發展의 양면성, 즉 그 보수성과 진취성의 두 면을 나타내고 있는 現象이라 하겠다. 이는 변방의 言語가 반드시 古代語가 아니요, 때로는 中央語보다 더 새로운 발달 형태가 있어 한 言語의 未來를 추측할 수 있다는 日本의 言語學者 服部四朗의 주장과도 상통하다고 할 것이다.

IV

(16) 더(彼) : 저
 더(笛) : 제, 적.
 덜(寺) : 절.
 더다(落) : 지다.
 텃더(天地) : 천지.
 더산(彼山) : 저산.

5) 이송녕, 韓國方言史, 「韓國文化史大系」 V, 1967.
 김완진, 「國語音韻體系의 研究」, 一潮閣, 1981.

모달다 : 무지적하다.

모질다.

고티다 : 고치다.

고찌다.

엇데(엇더) : 어멍, 어째서.

턴동 : 천동.

천등.

천두롱.

덤심(點心) : 점심.

딤(藥) : 짬, ex) 보리짬, 콩짬, 조짬.

딤치 : 짐치.

침 : 짐끼.

당가 : 장개.

더디다(擲) : 던지다.

티다(打) : 치다.

기트다(遺) : 끼치다.

지치다.

씨다 : (살이) 찌다.

씨다(蒸) : 찌다.

씨들다 : 찌들다.

通時的 觀點에서 볼 때 t-系 口蓋音化의 경우, 漢字語이건 고유어이건, 어휘적 형태소이건, 現代 語辭에서는 口蓋音化로 변하였음은 認知된 사실이다.

濟州地域語의 t-系 口蓋音化도 同一한 軌를 달리고 있다. 그러므로 t-系와는 달리 共時態에서는 t-系는 語頭에서 絶대로 生成되지 않는다.

歴史的으로 볼 때 t-系 口蓋音化는 口蓋母音인 /i/나 /y/의 영향으로 單一形態素內에서는 일찌기 종식되었고⁶⁾ 이런 音韻變化는 共時態에서는 그 환경을 바꿔 形態素境界에서만 실현됨을 볼 수 있다.

(17) (a) 굳이 : 구지.

같이 : 가치.

ㅁ찌.

땀받이 : 땀바지.

6) 李基文, 「國語音韻史 研究」, 韓國文化研究所, 1972, p. 64.

미달이 : 미다지.

 밀장.

설겅이 : 설거지.

물받이 : 물바지.

해돋이 : 해도지.

(b) 물+이 : 무치.

 곁+이 : 겨치.

 밀+이 : 미치.

(c) 발+이 : 바시.

 발+을 : 바슬.

 팔+이 : 포시.

 포시.

 팔+을 : 포슬.

 포슬.

(d) 꽃히다 : 꽃다.

 없히다 : 언치다. ex) 언쳐 불라.

 앉히다 : 안치다. ex) 안쳐 불라.

 덜히다 : 덜어 지다.

 달히다 : 달다, 더끄다.

 걸히다 : 거더지다.

歷史적으로 볼 때 /t/, /t^h/을 가진 語辭들의 類型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語彙的形態素의 끝 形態音素가 /t/, /t^h/로 된 것이다.

이들 語辭가 文法形態素인 /-i/나 名詞化形(Nominalizer)인 /-i/와 배합되면 k-系 口蓋音化와는 달리 口蓋音化를 生成한다.

濟州地域語도 共時的觀點의 現實音에서 t-系 口蓋音化의 生成條件을 形態素 配合이라는 形態論的條件(morphological condition)으로 규정하는 하나의 條件을 만족시키는 地域語의 발달 모습을 보인 것이라 하겠다. 즉 /-i/ 形態素 境界에서의 /t/, /t^h/의 口蓋音化는 一般的으로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c)에서 보듯이 똑같은 音韻環境에서는 口蓋音化가 生成되지 못하고 모두가 받침 /s/로 변화되고 있다. 또 이제까지는 同化主 /-i/ 앞에서만 同化作用을 일으키던 것이 /-i/ 이외의 모음 /-e/, /-ɨ/, /-i-ro/ 앞에서까지도 /s/音化되어서 종전의 /i/ 모음 앞에서의 口蓋音化現象이 바뀌어 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 지역어뿐 아니라 대부분의 地域語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이 구개음화를 피하고 /s/音으로 변한 것은 音韻現象의 변화라기보다는 경음, 격음의 된소리를 피하고 싶은 인간의 심리적인 작용에 의한 것인 듯싶지만 아직 그 原因이 규명되고 있지는 않다.

中和(Naturalization)되던 받침 /tʰ/, /c/, /cʰ/가 /s/音으로 변화된 현상은 앞으로 더욱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18) 버티다 : 바뒀다.

디디다 : 디디다.

드리다 : 디리다.

마디 : 무디.

막작.

잔디 : 잔뒤역.

테역

본디 : 본디.

어디 : 어디.

티끌 : 티끌.

뜨끌.

떠끌.

트다 : 트다.

띠(帶) : 띠.

떼.

티(癩點) : 티.

전디다 : 전디다.

준디다.

무디다 : 무끼다.

느티나무 : 느끼낭.

(19) 허마 俗傳 열히엿 이룰 견타엿노니. (初杜解 6:16)

준디를 드티올세라. (井邑詞)

어디 그 민의 父母 | 되얀는 주리 이시리오. (孟解·藤文公上)

日食할 무디에 이 아드리 나니라하야. (月釋 2:2)

몹걸 어지러운된 힘비치 더되도다. (杜解 12:2)

童子 六七 불너내야 속님 난 잔피에 足容重케 훗거러. (노계·莎堤曲)

누는 비치 본디 고고리 업도다. (杜解 2:63)

훈 티빨만 훗지라도. (行釋 5)

t-系 口蓋音化는 單一形態素內에서 대부분 語辭가 口蓋音化가 實現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의 예는 그 實現에 장애를 받고 있다.

이는 生成音韻論의 側面에서 볼 때 흥미있는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어떤 音韻의 基底形(underlying representation)을 찾아냄으로써 어떤 音韻變化의 普遍性을 알아 낼 수 있는 것이다.

表面構造(surface representation)가 구개음화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 기저모음이 구개음화를 생성시킬 수 있는 /i/가 아니고 口蓋音化 장애의 기저모음인 /ɨy/ 또는 /ʌy/ 일 때는 單一形態素라도 口蓋音化를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어디>의 /디/가 구개음화 /지/로 안되는 것은 /디/의 기저모음이 /i/가 아니고 /ɨy/이기 때문에 /디/의 /i/ 모음은 조음음성학상 /ɨ/에 가까운 /i/를 生成하게 된다. 이때 /ɨ/ 모음은 장애 요소로 작용하여 구개음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20) 발+일 : 받떨

발+임자 : 받떨자, 받떨재

밑+일 : 미테일

複合語에서는 口蓋音化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單語境界標識(word boundary marker)의 介在는 口蓋音化의 一般的 制約條件으로 있음을 볼 수 있다.

(21) 힘 : 심.

향긋하다 : 상긋하다.

헤아리다 : 세아리다.

힘들다 : 심들다.

힘껏 : 심껏.

힘줄 : 심줄.

흥내내기 : 송털내기.

송털락.

(22) 흘기다 : 실거리다.

실그리다.

실구다.

흘기다.

흘겨보다 : 실기보다.

흘겨보다.

흘끗흘끗 : 실끗실끗.

휘두르다 : 시두르다.

(21)에서 보듯이 /i/, /y/ 모음 앞에 나타나던 /h/ 음은 이 지역어에서도 /s/로 구개음화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 때 그 音韻生成條件은 /h/가 語頭に 있다는 것이다.

특히 (22)의 예에서 보듯이 이 地域語의 特徵으로 /i/ 모음 앞의 /h/ 음이 /s/로 口蓋音化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i/ 모음이 /i/ 모음으로 前舌化하여 /i/口蓋音化를 일으키는 結果라 여겨지나 k-系 口蓋音化와는 달리 순정모음 /i/가 아니더라도 표층구조에서 구개음화로 生成되는 것은 h-系 구개음화의 擴大로 보여진다. <휘두르다>에서 /-wi/ 모음 앞의 /h/가 구개음화하고 있는 사실도 同一한 과정을 겪고 있는 예임에 틀림없다.

다음의 예는 (22)와 다른 현상으로 나타난다.

(23) 회다 : 허다.

헤영호다.

회미하다 : 히미허다.

히끄므레하다.

시미허다.

회읍스름하다 : 히뚜룩허다.

회떡 : 새미.

곤떡.

회도미 : 심돔.

회새더기 : 힌새더기

신새데기

회자위 : 힌알.

회죽 : 힌죽.

회꽃 : 힌꽃.

회돼지 : 힌똥.

힌도야지.

語頭の /h/ 음이 /s/로 口蓋音化함을 보았다. 그러나 표층구조 <허다>에서 /히-/의 口蓋音化가 生成되지 않고 있다. 즉 前者가 口蓋母音의 영향으로 口蓋化가 되었다고 하면 後者는 그 기저모음에 /+y/나 /^y/로써 우리의 言語意識 속에 그 저해 요소인 /+ /나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해를 받고 있음이 그 원인이겠다.

그러나 <회도미>가 <심돔>, <회미하다>가 <시미허다>, <회새더기>가 <신새데기>로 구개음화가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구개음화가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이 지역어의 특징이 아닌가 한다.

(24) 향(香) : 상.

형제 : 성제.

형수 : 성수.

- 효자 : 소제.
 소죽.
 효저.
 효도 : 소도.
 효도.
 휴지 : 수지. 후지.
 흉년 : 송년, 흥년.
 향토(鄉土) : 상토, 향토.
 현금(現金) : 선금, 현금.
 협력(協力) : 섭력.
 휴가(休暇) : 수가.
 효심(孝心) : 소심, 효심.
 효녀(孝女) : 소녀. 효녀.
 효력(效力) : 소력.
 흉계(凶計) : 송계, 송기.
 흉물(凶物) : 송물.
 향교(鄉校) : 상교, 생교.
 형국(形局) : 성국.
 형문(刑門) : 성문.
 혈(血) : 설.
 혀(舌) : 새.
 현몽(現夢) : 선몽.
 현물세(現物稅) : 선물세. 현물세.
 현부인(賢夫人) : 선부인.
 혈기(血氣) : 설기.
 혈맥(血脈) : 설맥.
 협의(協議) : 섭의.

이 地域設의 경우 他方言群에 비하여 h-系 漢字語의 口蓋音化가 活潑히 生成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가 친숙하다고 느낄 수 없는 語辭들조차도 口蓋音化를 일으키고 있음은 이 地域語의 특이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한걸음 나아가 他方言群에서는 볼 수 없는 된소리의 구개음화 현상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 (25) 도끼 : 도치.
 돼지며 : 돼지치.

- 뜨겁다. : 지겁다.
- 토끼티 : 툃헤치
- 불끈 : 불축, 불착.
- 가깝다 : 가잡다.
- 깨다 : 채다.
- 꼴 : 출.
- 끈 : 친.
- 도깨비 : 도채비.
- (불을) 때다 : 짚다.
- 뽕나무 : 지들낭.
- 들뜨다 : 들러지다.
- 메뚜기 : 말축, 말족, 만축.
- 뱀띠 : 배염헤치.
- 꼴꾼 : 출놈.
- 나깨 : 는쟁이, 느쟁.
- 꼴 : 칭.
- 절뚝발이 : 절축발이, 절륙발이.
- 부끄럼타다 : 부치럼뜬다.
 비치럼뜬다.
 부끄림뜬다.
- 불끈불끈 : 불착불착
- (25) 쇠꼬리 : 쇠출리.
 쇠총지.
 쇠총냉이.
- 재 째거리다 : 자작거리다.
- 꼬리 : 출리, 꼴리, 꼬리.

/k'/가 /c/나 /c^h/, /t'/가 /c'/나 /c^h/로 변화하는 語辭를 보인 例이다. 그 生成條件은 語頭이거나, 2음절 이하이거나 구개음화가 生成되고 있다. 萬一 이같은 現象이 歷史적으로 또는 共時的으로 보편적인 現象이 아니더라도 근원적인 면에서는 국어 구개음화 現象이므로 国어의 구개음화 규칙을 正립하는데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V

濟州地域語에서 發展적으로 形成된 口蓋音化現象을 概括적으로 高찰하였다. 이제 前述한 바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1) t-系 口蓋音化는 $\begin{bmatrix} -back \\ +high \end{bmatrix}$ 의 資質을 가진 母音과 연결될 때 語頭에서는 活潑히 生成된다.
- 2) 單一形態素인 語彙形態素(Lexical morpheme)이거나, 여기에 文法的形態素(Grammatical morpheme)인 主格 /-i/, 제사 /-i-/, 使役, 被動接尾辭 /-i-/, /-hi-/, /-ki-/, 名詞化形(Nominalizer) /-i/, /-ki/가 연결될 때, 2음절 이하에서 대부분 k-口蓋音化가 生成되지 않으나, 적은 수의 어휘라도 2음절에서도 k-口蓋音化가 生成되고 있어 그 特異性を 보여 주고 있다.
- 3) 合成語에서 하나의 形態素 또는 單語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形態가 先行하는 경우 後行하는 頭音 /k/, /k'/ 등은 口蓋音化를 경험한다.
- 4) 史的觀點으로 볼 때 純正의 /i/가 아니고 二重母音에서 生成된 /i/는 k-口蓋音化를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개의 어휘에서는 形態素素的 制約에서 逸脫한 例를 볼 수 있다.
- 5) 漢字語의 k-系 口蓋音化는 語頭에서 활발히 生成되어, 점진적 발전을 이루고 있어, 그 擴大의 폭을 심화시키고 있다.
- 6) 單一形態素 內에서의 t-系 口蓋音化는 일찌기 終息되어 그 形態를 유지하고 있으며, 現在는 그 音韻環境을 바꿔 形態素境界에서 實現되고 있다.
- 7) 表層構造(surface representation)에서 口蓋音化가 實現될 수 있는 환경에 있더라도 그 基底形이 純正의 /i/가 아닐 때는 t-系 口蓋音化를 排斥한다.
- 8) 單語境界標識(word boundary marker)의 介在時 口蓋音化의 制約條件으로 作用하고 있어, t-系 口蓋音化는 生成되지 않는다.
- 9) 語頭的 h-系 口蓋音化는 活潑히 生成되어 漸進的으로 擴大의 幅을 넓혔으며, 口蓋音化의 制約條件인 /t/ 모음, /wi-/ 모음도 口蓋音化한 例를 볼 수 있다.
- 10) 歷史的 二重母音을 基저형으로 한 h-系 口蓋音化는 生成되지 않음이 一般的이나, [ʃ]로 口蓋音化한 例가 있어 그 擴大의 現象을 볼 수 있다.
- 11) 漢字語의 h-系 口蓋音化는 他地域보다 현격한 發展을 보여 그 特異성을 엿볼 수 있다.
- 12) 他地域에서 볼 수 없는 硬音의 口蓋音化를 볼 수 있다. /k'/가 /c/, /c^h/으로, /t'/가 /c/, /c^h/로 바뀐다. 그 生成條件은 語頭 또는 2음절 이하에서도 生成되고 있다.

Summary

The Phenomena of Palatalization in Chejudo Dialect

Kim Kwang-woong

k-palatalization occurs most naturally when those phonemes are combined with [⁻back / ₊high] vowels.

When /k/, /k^h/, /k'/ are combined with bi-syllabic single lexical morphemes, the phenomenon of palatalization does not arise. The combination of those morphemes above with grammatical morphemes does not allow palatalization in spite of the number of increased syllables to more than three.

Complex words with free morphemes preceding other morphemes prevent palatalization.

/i/ which is derived from a diphthong does not cause k-palatalization, but pure /i/ does. k-palatalization of Chinese characters occurs naturally at the initial position of words.

t-palatalization occurs only at a morpheme boundary. /i/ derived from a diphthong except pure /i/ does not bring about t-palatalization. t-palatalization is blocked when a word boundary marker exists.

h-palatalization occurs most naturally at the initial position of words. /i/, which is derived from a diphthong except for pure /i/, does not cause h-palatalization. The phenomenon of Fortition Palatalization exists in Chejudo dialects.